

우리민속 한마당

함께 누리는 문화 행복한 대한민국

Korean Folk Performance For Visitors



06
JUNE 2016

토요상설공연 Saturday Performances in June

2016년 6월 매주 토요일 오후 3시, 국립민속박물관 대강당

일요열린민속무대 Sunday Performances in June

2016년 6월 매주 일요일 오후 2시, 국립민속박물관 일미당



우리민속 한마당

함께 누리는 문화 행복한 대한민국
Korean Folk Performance For Visitors

6월 토요상설공연

Saturday Performances in June, Every Saturday 3:00Pm, Museum Auditorium

2016년 6월 매주 토요일, 오후 3시, 국립민속박물관 대강당



제951회

채수현의
‘삼색도화 피었더라’

‘Tri-color of Peach blossom’ by Chae Suhyun

06. 04.



제952회

전통의 향기
‘태평성대’

Fragrance of Tradition, ‘Taepyeongseongdae’

06. 11.



제953회

하늘의 소리, 땅의 노래
‘일곱 빛깔 경기소리’

The Sounds and songs of Heaven and Earth
‘Seven Colors of Gyeonggi Sori’

06. 18.



제954회

한윤희무용단의
‘몸짓의 소리’

‘Sound of Motion’ by Han Yunhee Dance Company

06. 25.

6월 일요열린민속무대

Sunday Performances in June, Every Sunday 2:00Pm, Museum Courtyard

2016년 6월 매주 일요일, 오후 2시, 국립민속박물관 앞마당



제394회

날뫼북춤 비상하다

The Soaring Nalmoebukchum

06. 05.



제395회

해설이 함께하는 유네스코 택견,
‘다함께 택견 한마당!’

Demonstration of UNESCO Heritage,
‘Taekkyeon All Together!’

06. 12.



제396회

향기 나는 마을 굿

The Scent of Village, Gut

06. 19.



제397회

전통연희와 풍류 ‘명가복가’

Traditional Performance & Taste for the Arts
‘Myeonggabokga’

06. 26.

한민속
Korean Folk
Performance
For Visitors

한마당



채수현의 '삼색도화 피었더라'

'Tri-color of Peach blossom' by Chae Suhyun

2016. 06. 04. Saturday(토) 3:00pm

국립민속박물관 대강당 Museum Auditorium



공연내용 Performance Description

이번 공연은 경기소리를 전공하며 정가와 서도소리를 함께 학습한 채수현의 소릿길을 엿볼 수 있는 무대를 선보인다. 전통성악의 3가지 장르를 한자리에서 감상할 수 있고 해설이 함께하여 우리소리의 특징과 맛을 충분히 느끼실 수 있는 무대가 될 것이다.

첫 번째 무대는 정가 중 시조인데 그중에서도 유명한 '청산리벽계수야'로 여성성을 표현한다면 가사 중 '수양산가'는 끽끽하고 묵직한 소리의 힘을 표현한다. 다음은 경기소리인데 경기 12잡가 중 '유산가'로 봄날의 화사함을, 경기민요의 대표곡 노랫가락, 창부타령을 포함한 흥겨운 소리로 관객과 함께 호흡한다. 마지막으로 서도소리 중 서도잡가인 '제전', 그리고 서도민요 중 산염불과 난봉가시리즈로 애원성과 구슬픔을 극대화시켜 삶의 애환을 표현하고자 한다.

In this program, Chae Suhyun prepares a path of Three traditional vocal music genres who studied Gyeonggisori along with Jeongga and Seodo sori. Three traditional vocal music genres will be presented with translation. Especially, the audience may feel about the characteristic and taste of Korean sound.

'Cheongsanri Byeokgyesuya' is one of the famous Sijo(traditional Korean poem) from Jeongga which expresses the feminity, 'Suyangsanga' shows strong and heavy sound comparing to the first stage. What follows is 'Yusanga' of which a song from Gyeonggi Japga(among 12 songs) to show the mild day of Spring, 'Changbu Taryeong' gives energetic and dynamic sound to the audience. Finally, Jejeon(Seodo Japga), a part of Seodo sori will be presented along with Seodo folksongs like Sanyeombul and series of Nanbongga. These songs will depict the sorrow and plead emotion presenting the grief of life.

공연순서 Program

- 01 시조 '청산리벽계수야' Sijo 'Cheongsanri Byeokgyesuya'
- 02 가사 '수양산가' Gasa 'Suyangsanga'
- 03 경기잡가 '유산가' Gyeonggi Japga 'Yusanga'
- 04 경기민요 '노랫가락 외' Gyeonggi Minyo 'Included Noraegarak'
- 05 서도잡가 '제전' Seodo Japga 'Jaejeon'
- 06 서도민요 '산염불 외' Seodo Minyo 'Included Sanyeombul'



대표 채수현 (국립국악원 민속악단 단원)
출연 채수현, 곽재혁, 김선호, 연지은, 최윤희, 박소연

날뫼북춤 비상하다

The Soaring Nalmoebukchum

2016. 06. 05. Sunday(일) 2:00pm

국립민속박물관 앞마당 Museum Courtyard



공연내용 Performance Description

이번 공연은 대구 비산동 일대에서 전승되어 오는 대구광역시 무형문화재 제2호 비산농악 날뫼북춤과 사물놀이다. 날뫼북춤은 정확한 유래는 알 수 없으나 산 모양의 구름이 날아오다 어느 여인의 비명소리에 놀라 땅에 떨어져서 동산이 되었다는 전설에 의해 날아온 산이라 하여 '날뫼(飛山)'라 부르게 되었고, 옛 지방관리가 순직했을 때 백성들이 이를 추모하기 위해 봄·가을에 북을 치며 춤을 추어 제사를 지냈다고 한다. 날뫼북춤은 흰 바지저고리에 감색 전투복을 입고 머리에 흰 띠를 두른다. 연주악기로 북을 사용하고, 경상도 특유의 덧배기기락(굿거리장단)에 맞추어 춤을 준다.

본 무대에서는 가장 대중적인 사물놀이를 선보여 신명나고 흥겨운 불거리를 제공하며, 마지막에 관객과 공연자가 다함께 어우러져 노는 대동놀이로 공연을 마무리한다.

Bisan Nongak Nalmoebukchum(a transmitted style of farmer's performance in Bisan village, Daegue province) and Samulnori(Korean traditional percussion quartet); Daegu Metropolitan City Intangible cultural Asset No.2 will be presented in this stage. Even though a definite origin of Nalmoebukchum is not existed, there are related fables. First, a cloud shaped like a mountain was dropped down to the ground due to a lady's scream. Then, the cloud became a mountain called 'Nalmoe'; Second, in Spring and Autumn, villagers held a memorial service along with dancing and drum beating to cherish local government officials who passed away. On top of a white jacket and trouser, a dark blue uniform with a white band on their heads were worn. The performers hit a Buk(drum) in accordance with Deotbaegigarak(Gutgeori rhythm), the characteristic rhythm of Gyeongsangdo province.

In this stage, through presenting one of the most popular Samulnori, audience will be able to enjoy rhythmical beats. Finally, a collaborative performance called Daedongnori will unite the musicians and the audience in bliss.

공연순서 Program

01 앉은반 삼도 사물놀이 Anzeunbansamdo Samulnori

02 날뫼북춤 1~7마당 Nalmoebukchum 1~7 Movements

①정적궁이 Jeongjeokgungi ②반직굿 Banjigut ③엎어빼기 Eopeobbaegi

④다드래기 Dadeuraegi ⑤물레돌기 Mulaedolgi

⑥허허굿 Heoheo-gut ⑦오방진 Obangjin

03 상모판굿과 개인놀이 Sangmopangut & Solo Performance

04 날뫼북춤 8~12마당 Nalmoebukchum 1~7 Movements

⑧모듬굿 Modeum-gut ⑨개인기락 Solo Play

⑩살풀이굿 Salpuri-gut ⑪개인놀이 Solo Performance ⑫덧배기굿 Deotbaegi-gut



대 표 김주범 (사단법인 날뫼민속보존회 경기도남양주시지부장)

출 연 강진숙, 강경자, 곽경환, 이관호, 이춘희, 최화복, 임수미, 나숙녀, 이미섭, 박수용, 구인숙, 김남순, 최영희, 허은이, 민수진, 정경호, 이재권, 이경미, 한혜련, 정경식, 박미영, 최혜정, 윤진희, 배상애, 금성현, 길순자, 김인주, 나중하, 맹은주, 박현숙, 이성자, 이정화, 이현진, 정난채, 한난희, 한종아, 배영숙, 전경자

전통의 향기 ‘태평성대’

Fragrance of Tradition, ‘Taepyeongseongdae’

2016. 06. 11. Saturday(토) 3:00pm

국립민속박물관 대강당 Museum Auditorium



공연내용 Performance Description

이번 공연은 중요무형문화재 제92호 태평무 이수자이며 태평무전수관 단장으로 활동해온 김미란이 우리 전통춤의 멋과 흥을 한껏 느낄 수 있는 무대를 선보인다.

첫무대는 중요무형문화재 제15호로 사자의 강인함을 갖고 잡귀를 쫓고 마을의 평안과 안녕의 의미를 담은 ‘북청사자춤’을 선보인다. 이어서 즉흥적인 춤사위와 북 가락이 돋보이는 ‘진도북춤’, 청초한 난의 아름다움을 춤으로 드러낸 ‘애산지무’, 유연한 춤과 익살스러움으로 무대화 한 ‘미yal할미’, 어떤 양식이나 구애됨이 없이 무자의 감흥에 따라 즉흥적으로 추는 ‘즉흥무’, 빠른 박자의 생동감 넘치는 활달한 춤사위로 국내는 물론 세계무대에서도 각광받고 있는 ‘부채춤’, 마지막으로 우리 춤의 백미 중요무형문화재 제92호로 지정되어 강선영에 의해 전승되고 있는 ‘태평무’로 우아하고 섬세하며, 절도 있는 춤사위로 우리 전통의 춤 향기와 함께 태평성대를 느끼는 자리가 될 것이다.

Kim Miran who is the bearer of Taepyeongmu, the Important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No.92, and the head of Taepyeongmu Transmission Hall will perform Korean traditional dance with its wonder and merriment.

The stage begins with 'Bukcheong Sajachum', the Important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No.15, expelling evil spirits with lion's strong power and wishing a great peace of society. This is followed by 'Jindobukchum' of which an impromptu dance and drum performance. 'Aesanjimu' presents a dance performance depicting an elegant orchid; 'Miyalhalmi' decorates with smooth dance and flowing movement; 'Jeukheungmu' shows a free dance performance without any style. 'Buchaechum' is famous traditional dance performance on the world stage with fast rhythm. The last performance 'Taepyeongmu' expresses diverse of rhythm and harmony. The audience will experience taepyeongseongdae(grand peace) through fragrance of Korean traditional dance performances.

공연순서 Program

- 1 북청사자춤 Bukcheongsajachum
- 2 진도북춤 Jindobukchum
- 3 애산지무 Aesanjimu
- 4 미yal할미 Miyalhalmi
- 5 즉흥무 Jeukheungmu
- 6 부채춤 Buchaechum
- 7 태평무 Taepyeongmu



대표 김미란 (태평무전수관 단장)

연출 심경수

출연 김미란, 김백광, 최브림, 유영란, 심경수, 김정아, 이지은, 고현서, 김시은, 강다현,
구서혜, 이다연, 이세진



해설이 함께하는 유네스코 택견, ‘다함께 택견 한마당!’

Demonstration of UNESCO Heritage, 'Taekkyeon All Together!'

2016. 06. 12. Sunday(일) 2:00pm

국립민속박물관 앞마당 Museum Courtyard



공연내용 Performance Description

이번 공연은 조선시대 보고 즐기는 오락적 여흥거리 택견판 재현으로 우리 민족의 멋, 흥, 신명을 전달하는 무대이다.

택견은 무형문화재 제 76호이자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된 것으로, 일정한 규칙을 정해 기량과 기술을 겨루는데 윗마을과 아랫마을이 편을 갈라 시합을 벌이지만 경기에 이긴 마을은 논농사에 풍년이 들고, 경기에 진 마을은 밭농사에 풍년이 든다는 우리 선조들의 진정한 상생(相生)의 철학을 엿볼 수 있는 전통 무예이다.

젊은 세대들과 마음을 열고 공감과 소통을 통해 모두가 하나 되어 함께 즐길 수 있는 택견 공연이 될 것이다.

This performance is the reenactment of Taekkyeon(Traditional Korean Martial Arts), one of the fun activities of the Joseon Dynasty. The purpose of this performance is promoting the beauty, joy and mirth of the Korean people.

Taekkyeon, the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No. 76, is on the Representative List of the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of Humanity by UNESCO. It is also a traditional martial art that conveys the philosophy of genuine sangsang (coexistence) among our ancestors. In the past, people from two different villages were split into two groups and compared their skills in accordance with certain rules. Especially, there was a belief related with the harvest. Without the result of the competition, both winning and losing teams would face abundant harvest respectively in rice farming and dry-field farming. The Taekkyeon demonstration will bring forward communal harmony, which means the spirit of composure and taste from Korean people.

공연순서 Program

01 전통무예 택견시범 Demonstration of Taekkyeon

02 100년 전 결련택견 재현

Demonstration of Gyeollyeon Taekkyeon

03 택견 체험 첫 마당(기본 수련과정)

The 1st Movement of Taekkyeon(Basic Steps)

04 택견 체험 두 마당(아리랑에 맞춰 연단 18수)

The 2nd Movement of Taekkyeon(18steps with Arirang Melody)

05 포토타임 Photo Time



대표 안재식 (발광엔터테인먼트 대표)

출연 이지수, 이선민, 이상호, 고윤영, 이상호, 정현재, 이태훈, 조하나, 이나라, 김위광

하늘의 소리, 땅의 노래 '일곱 빛깔 경기소리'

The Sounds and songs of Heaven and Earth 'Seven Colors of Gyeonggi Sori'

2016. 06. 18. Saturday(토) 3:00pm

국립민속박물관 대강당 Museum Auditorium



공연내용 Performance Description

이번 공연은 과거 서울, 경기지역에서 활동했던 전통예인의 대표적인 음악으로 서민들의 삶과 애환이 잘 들어나는 경기소리의 다채로운 무대를 선보인다.

특히 우리 국악사에서 가장 의미 있고 상징적인 경복궁을 중심으로 대중에 의해 활성화되었던 민속음악을 감상하는데 경기잡가를 전문으로 배우는 이수자와 전수자가 어우러져 멋진 춤과 음악을 바탕으로 경기소리판을 준비하였다. 옛 우리의 조상들의 여흥문화를 간접 체험하고 다양한 레퍼토리로 삶의 희로애락을 자연스럽고도 때로는 해학적으로 풀어내어, 일곱 빛깔 무지개처럼 독특하고 색깔 있는 경기소리공연으로 멋과 흥을 느끼고 신명으로 하나 되는 뜻 깊은 시간이 될 것이다.

Gyeonggi Sori is one of the representative folk song of traditional art performers from Seoul and Gyeonggi region at the past time. The stage will be presented various forms of Gyeonggi Sori to express the grief of living.

Especially, the bearer and practitioner of Gyeonggi Sori presents Gyeonggi Sori Festival at the center place of Gyeongbokgung Palace, the most historical and symbolic place, in Korean history. Through the performance, the audience may indirectly experience the past generation's culture entertainment, diverse ways to naturally and humorously re-interpreted the performance. In the end, Gyeonggi Sori performance like seven colors of rainbow will bring merriment and excitement to conclude the whole program.

공연순서 Program

- 01 죽어도 아니 눈물 – 희심곡
Die rather than cry-To purify the mind
- 02 화평세월 나리소서 – 노랫가락, 청춘가, 태평가, 한강수타령, 풍년가
Hwapyeongsaeul Narisoseo-Noraegarak, Cheongchunga, Hangangsoo taryeong, Pungnyeonga
- 03 흥절로 나도절로 – 방아타령, 사설방아타령, 양산도
Heungjeolo Nadojeolo-Bang-a Taryeong, SaseolBang-a Taryeong, Yangsando
- 04 은실금실 오색당실 – 휴모리잡가 중 비단타령
Silk and Gold tread, Osaek Dangsil-Bidan Taryeong from Hwimori Japga
- 05 산이 좋아 산이로니 – 강원도아리랑, 신고산타령, 궁초댕기
I love mountain-Gangwondo Arirang, Singosan Taryeong, Gungchodenggi
- 06 여보시오 그 말씀마오 – 담비귀타령
Excuse me, Stop your words-Dambagwi Taryeong
- 07 태평성대가 예로구나 – 창부타령, 시설난봉가, 경복궁타령
Taepyeong Seongdae-Changbu Taryeong, Sasulnhanbongga, Gyeongbokgung Taryeong



대표 노경미 (사단법인 경기잡가포럼 이사장)

출연 한진자, 노영숙, 이혜선, 이윤기, 강은숙, 이종숙, 정태순, 조정옥, 김성임, 유춘경, 안해련, 배영숙, 박민주, 장영인, 한경진, 최서연, 송유현, 백자영



향기 나는 마을 굿

The Scent of Village, Gut

2016. 06. 19. Sunday(일) 2:00pm

국립민속박물관 앞마당 Museum Courtyard



공연내용 Performance Description

이번 공연은 옛 추억, 고향의 향기를 추구하는 풍물놀이 연구소의 판굿으로 임실필봉농악, 진안농악, 남원농악, 화순한천농악 등 호남좌도농악을 대표로 경쾌하고 신명난 무대를 선보인다. 첫 공연은 농악대들이 풍악을 울리며 행진하는 길놀이로 시작한다. 이어서 입장, 삼방진, 채굿, 호허굿, 풍류굿, 미지기굿으로 이어지는데 전체 치배가 가락을 위주로 구성된 앞굿 과장이다. 본 과장은 아랫놀음(손과, 발놀림)에 치중하며 각 과정별로 방울진, 원진, 쌍진풀이, 태극진 등 다양한 진풀이를 통해 전 치배들의 호흡을 하나로 맞춰내는 과정이다. 이어지는 뒷굿은 가진영산, 군영놀이, 개인놀이, 탈머리로 구성된 과장으로 가진영산 가락에 맞추어 윗놀음(채상모놀음)을 위주로 영산춤을 춘다. 이어서 잡색, 고깔소고, 채상소고, 북, 장구, 쇠 치배가 각 군영별로 단체놀음을 하고 이어서 개인놀이, 마지막으로 탈머리 굿으로 끝이 난다.

Various Honam Jwado styles of Nongak(farmer's music) from different regions like Im-silpilbong, Jinan, Namwon, and Hwasunhancheon will be presented by Pungmulnori Institute which is seeking the old memories and the scent of hometown.

This exciting performance will begin with Gilnoli, a music band parade. Then, Ap-gut Gwajang, which the whole Chibae is composed following melodies through Ipjang, Sambangjin, Chea-gut, Hoheo-gut, Pungryu-gut, and Mijigi-gut will be continued. Throughout various demonstration of Jins(positional steps), whole Chibae(literally, performers) will tune the beat in this part. Especially, based on Araetnolum(hands and feet steps), each part such as Bangwool-jin, Won-jin, Ssangjinpuri, and Taegeukjin will be demonstrated.

Duit-gut, a comprised chapter with Gajinyoungsan, Gunyoungnori, Solo performance, and Talmeori will be performed by Yitnoreum(Chaesangmonoreum) focused Youngsan styled dance through Gajinyoungsan melody. Continuously, various music instruments like Japsaek, Goggalsogo, Chaeangsogo, Buk, Janggu, Iron Chibae will be played by each group. Then lastly, Individual performance and Talmeori-gut will close the performance.

공연순서 Program

01 길놀이 Gilnori

02 앞굿- 삼방진, 채굿, 호허굿, 풍류굿, 미지기굿

Ap-gut: Sambang-jin, Chae-gut, Hoheo-gut, Pungryu-gut, Mijigi-gut

03 뒷굿- 가진영산, 군영놀이, 개인놀이, 탈머리

Duit-gut: Gajinyoungsan, Gunyoungnori, Solo Performance, Talmeori



대표 오광열 (풍물놀이연구소 소장)

출연 오광열, 안병탁, 박경수, 한태정, 채장수, 한창희, 이균형 외 총40명 내외

한윤희무용단의 '몸짓의 소리'

'Sound of Motion' by Han Yunhee Dance Company

2016. 06. 25. Saturday(토) 3:00pm

국립민속박물관 대강당 Museum Auditorium



공연내용 Performance Description

이번 공연은 전통무용과 창작무용을 활발히 활동 중인 한윤희무용단의 공연으로 전통무용, 타악민속춤, 신무용, 창작무용의 구성으로 우리 춤의 멋과 흥을 느낄 수 있는 한국무용을 선보인다.

첫 무대는 토속적이며 경쾌한 춤사위 몸짓과 발동작의 조화를 이뤄 몸의 리듬과 음의 리듬이 합쳐서 흥을 돋우는 '소고춤'으로 시작한다. 이어서 여인의 흥취를 느낄 수 있는 '흥춤', 향발타악기와 한국창작음악의 조화를 이룬 '향을', 기존의 한을 담을 살풀이춤과는 달리 교방의 흥을 위한 춤으로 한, 흥, 멋, 태를 고루 갖춘 '교방살풀이춤'에 이어 우리의 무속 신앙적 느낌을 느낄 수 있는 한국창작무용 '푸닥거리', 북과 어우러져 춤사위 기교가 뛰어나 세련되면서도 매우 힘이 있는 '진도북춤'을 공연한다. 마지막 공연은 한국을 대표하는 춤으로 국내외 많은 공연으로 널리 알려져 있는 '부채춤'을 통하여 감동을 느낄 수 있는 무대를 선사할 것이다.

Han Yunhee Dance Company, actively performing traditional and creative dance performances, presents traditional, folk percussion, new style and creative dance performances in one stage. Through the performance, the performers will bring merriment and mirth to the audience.

'Sogochum', harmonized with rhythmical motion and feet step to bring enjoyment, lifts the curtain. It is followed by 'Heungchum' shows elegant female figures with sophisticated movement; 'Hyangyl' coordinated with percussion and Korean creative music; 'Gyobangsarpurichum' differs than Salpurichum to shows sorrow, excitement, beauty and figure. 'Pudakgeori' is the Shamanism style of Korean creative performance, 'Jindobukchum' of which performing with drum. For the finale, Splendid 'Buchaechum', a representative dance in Korea which has been known both locally and internationally will finalize the program.

공연순서 Program

- 01 소고춤 Sogochum
- 02 흥춤 Heungchum
- 03 향을 Hyangul
- 04 교방살풀이춤 Gyobang Salpurichum
- 05 푸닥거리 Budakgeori
- 06 진도북춤 Jindobukchum
- 07 부채춤 Buchaechum



대표 한윤희 (용인대학교 무용과 교수)
사회 김주영 (용인대학교 무용과 겸임교수)
출연 김현숙, 안혜진, 현경, 고아라, 김인애, 김정민, 이세이, 최준석, 권채영, 김은채, 김현지A, 김현지B, 박가영, 배서연, 배수진, 이미정, 조소담, 김소정, 김윤진, 김은혜, 박성희, 이소희, 이지희, 임효정, 정선영, 정지예, 조상연, 최현지, 하승민

전통연희와 풍류 ‘명가복가’

Traditional Performance & Taste for the Arts ‘Myeonggabokga’

2016. 06. 26. Sunday(일) 2:00pm

국립민속박물관 앞마당 Museum Courtyard



공연내용 Performance Description

이번 공연은 허脖하고 푸짐하며 삶의 생동감이 넘치는 호남좌도 임실필봉농악을 선보인다. 오늘의 공연은 굿을 시작하기 전에 치배(연희자)들이 손발을 맞추어 보며, 굿을 빠르게 몰아가는 형태의 굿머리 가락으로 시작한다.

이어서 1채부터 7채까지 독립된 가락을 사용하여 장단의 빠름과 느림을 섞어가며 짜임새 있게 원진으로 움직이며 연주하는 채굿, 치배(연희자)들이 원진 반대방향 안쪽으로 달려 들어가 원진을 감아 돌면서 나선형 모양의 진을 만들어 가며 꾸미는 방울진굿, 두 줄의 진 형태를 갖추고 진풀이 가락으로 태극 모양을 만들며 구음으로는 호호와 허이를 외치며 움직이는 호호굿, 그리고 미지기굿으로 농악은 끝이 난다. 공연의 마지막은 치배(연희자)들의 개인놀이로 관람객들과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무대가 될 것이다.

Today, Imsil Pilbong Nongak(literally, famers' music) of Honam Jwado region in North Jeolla province that is full of vigor and vitality will be presented. The stage begins with Gutmeori-garak, fast beating performance. It means a group of chibae (performers) tune the beats and the details of the performance before presenting. In Chae-gut, performers make a round formation while playing a set of 7 independent rhythms with combination of fast and slow tempos. Banguljin-gut whose performers make a spiral shape; and Hoho-gut where the troupe lines up in 2 columns and shouts 'Hoho' and 'Heoi' will be followed. Nongak performance will conclude with Mijigi-gut and lastly, each performer will play individually to delight the audience with their distinctive skills and talents.

공연순서 Program

- 01 1마당 – 호남좌도 임실필봉농악
1st Act - Honam Jwado Imsil Pilbong Nongak
1. 굿머리 가락 Gutmeori-garak
 2. 채굿 Chae-gut
 3. 방울진굿 Banguljin-gut
 4. 호호굿 Hoho-gut

- 02 2마당 – 개인놀이
2nd Act - Solo Performances



대표 송주광 (전통연희연구소 대표)

연출 정일협

출연 송주광, 정일협, 민재경, 구자호, 유선화, 송숙진, 윤웅기, 홍성준, 최보근, 장혜니, 김재균, 정선희, 임예주, 김혜정, 강정호, 김혜숙, 송미경, 김순귀, 이상우, 정진희, 박은선, 배송미, 김은숙, 송주진, 최동숙, 송윤아, 송윤준, 정연주, 노진우, 김선범, 김린한, 김석준



주말마다 신나는 우리민속공연

KOREAN FOLK PERFORMANCE FOR VISITORS



찾아오는 길

지하철 1호선 : 시청역 4번 출구에서 마을버스 11번 이용

3호선 : 경복궁역 5번 출구, 안국역 1번 출구에서 도보로 15분

5호선 : 광화문역 2번 출구에서 마을버스 11번 이용

버스 광화문 세종로 일대 버스정류장(도보로 15분)

주차 경복궁 주차장 이용

주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삼청로 37 국립민속박물관(우03045)

National Folk Museum of Korea, Samcheongro 37, Jongno-gu, Seoul, Korea [03045]

전화 02-3704-3114 홈페이지 www.nfm.go.kr



이용안내

개관 및 관람 시간

03~05월	09:00~18:00	17:00까지 입장
06~08월	09:00~18:30	17:30까지 입장
09~10월	09:00~18:00	17:00까지 입장
11~02월	09:00~17:00	16:00까지 입장
05~08월 주말·공휴일	09:00~19:00	18:00까지 입장
야간개장 매달 마지막 수, 금, 토	09:00~21:00	20:00까지 입장

휴관일 매주 화요일 **입장료** 무료

※ 공연접수 공고는 4~5월과 9~10월에 박물관 홈페이지를 통해 하고 있습니다.